

INTERIORS



11. Nov 2013

1986 ▶ ISSUE NO. 326

₩ 16000

www.INTERIORSKOREA.com

326

DESIGNS
in CHINA

MAISON&OBJET 2013

LONDON DESIGN FESTIVAL 2013



9 771227 182008

ISSN 1227-1829



칼리토 카르발료사

취재 · 박지혜 | 이미지제공/문의 · 국제갤러리 (02)735-8449



살라 데 에스페라

브라질 출신의 설치 작가 칼리토 카르발료사의 개인전이 11월 12일까지 국제갤러리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그의 첫 번째 한국전시로, 국제갤러리의 3관 전체를 탈바꿈하여 기존의 갤러리 공간 내에 육중한 전신주들을 설치하는 작업으로 이루어졌다.

야심찬 조각적 설치와 비디오 작업들로 잘 알려져 있는 카르발료사의 작업은 건축적 공간의 변형을 통해 관객으로 하여금 미묘한 혼돈을 경험하게 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그는 우리의 도시적 풍경에 내재하는 일상적인 물질성을 재규정하고, 상실과 평온이라는 시적 감정을 동시에 환기시킨다. 그가 사용하는 재료들은 대규모의 오브제부터 금방 사용되고 없어질 직물에 이르기까지 다양하지만, 공간에 대한 재해석과 고요한 아름다움의 순간을 창조해내는 일에 대한 열정은 끊임없이 이어져왔다.

카르발료사는 이번 전시를 위해 그의 대표적인 조각적 설치 작품인, '대기실'이라는 의미의 <살라 데 에스페라(Sala de Espera)>를 선보인다. 이 작품은 오스카 니마이어가 디자인한 상파울로 현대 미술관에서 처음으로 설치되었으며, 이번 전시에서도 국제갤러리의 공간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실내공간을 극적으로 가로지르며 교차하는 12개의 나무기둥은 본래 가로등 기둥으로 사용되던 것이다. 8~12m 길이의 이 오브제들은 형용할 수 없는 가벼움과 동시에 죽음의 무게에 대한 불길한 감정을 떠올린다. 가로등 기둥과 같은 일상적 사물들을 급진적으로 재해석함으로써 운동과 감성에 대한 새로움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